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

남가주 한인교회, 아버지의 날

6월 15일 아버지의 날(Father's Day)을 맞아, 남가주 한인 교회들이 예배에서 아버지의 사명과 책임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각각 사랑, 순종, 신앙 교육을 주제로 오늘날 아버지들이 회복해야 할 본질에 대해 전했다.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노창수 목사는 “AI가 세상의 모든 영역을 뒤 흔들고 있지만, 인간만이 지닌 고유의 능력이 있다”며, “그것은 사랑”이라고 강조했다.

“글쓰기, 번역, 코딩, 음악, 그림까지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절대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 인간의 영성, 창조성, 도덕성, 희생 그리고 사랑이다.”

“AI가 부모님의 본능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신앙 역시 사랑이 빠지면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했다. “설교를 잘하는 법은 설교의 기술이 아니라 설교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청중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청중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과시에 불과하다”는 신학교 시절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사랑은 품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희생은 조명이 꺼지면 끝나는 연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랑이 없는 구제는 값싼 동정,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연극이다. 아버지의 희생은 불이 켜져야 볼 수 있는 연극이 아니다. 아무도 보지 못해도

계속되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다.”

노 목사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향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싶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 그만큼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며,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던 간증을 소개하며, “용서와 회복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목사는 “사랑이 없는 신앙은 허상이고, 사랑이 없는 희생은 값싼 동정일 뿐”이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했다.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낮은마음에임하는생명의은혜”

같은 날,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는 마가복음 5장 22-24절 본문을 중심으로 “자녀를 살리는 위대한 아버지”라는 주제로 회당장 아이로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과 순종의 본질을 설명했다.

진 목사는 “아이로는 회당장이었지만, 딸의 병 앞에 무기력해졌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도움을 구했다”며, “낮은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주님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과 다르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결국 순종의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권면했다.

설교 후반부에서는 손양원 목사와의 부친 손종일 장로의 신앙을 소개하며, 믿음은 가정에서 이어지는 유산임을 강조했다.

주디 한 기자 → 8면에서 계속



6월 15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바트 암 전경. © CBN News

기독교 지도자들, 중동 긴장 속 기도 촉구

“유혈 사태 끝나고
자비와 절제 나타나길”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력 충돌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의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 속에서 이스라엘 국민을 위해 계속 기도하자”며 이사가 25장 4절 말씀

을 인용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피난처가 돼 주신다”고 했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 회장 프랭클린 그래함(Franklin Graham) 목사 역시 SNS를 통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했다. 그는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고 공언해 왔고, 미국 또한 그들의 표적”이라며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모두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지난주 이스라엘에 있었고, 후티 미사일 공격으로 여

러 차례 대피해야 했다. 미국에 살면서 이런 식으로 생활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라.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시편 122:6)”고 말했다.

세계기도센터(World Prayer Centre)는 최근 사태의 급속한 악화를 이유로 긴급 기도 요청을 발표했다. 중동 선교단체 ‘엠브레이스 더 미들 이스트’(Embrace the Middle East) 역시 “유혈 사태가 끝나고 자비와 절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강해진 기자 → 3면에서 계속

美 목회자, 정신적 건강 위험

50% 이상 전문적 지원 부재

미국에서 목회자들이 관계성과 신체적·정서적·정신적 건강 면에서 일반 성인 및 실천적 기독교인들보다 더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그룹(Barna Group)이 신앙 기반 테크 기업 글루(Gloo)와 공동으로

발표한 최신 보고서 ‘교회의 현주소(State of the Church)’에서 나타난 결과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목회자의 52%가 멘토, 조언자, 코치, 상담사 등의 전문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비공식적인 개인 멘토(22%)나 영적 지도자(17%)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해진 기자 → 8면에서 계속

미주기독일보

YouTube

CDTV

TV기독일보 주간뉴스

건강하게
ALWAYS HEALTHY
능세롭게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매월하시든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 미국 ↔ 한국 ₩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병크법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JOONIM CHURCH

교회 창립 1주년 감사 및 임직 예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 Church가 교단을 떠나 광야로 나온 지 1년!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특별한 여정을 기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일시 6월 22일(주일) 오후 4시 **장소** Sonora High School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담임 최현규 목사

주님 Church

- 월넛 사무실 :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 joonim.org / joonim0623@gmail.com / 626-901-9191

코리아타운 넘버원, HeritAge PACE 고령자 위한 맞춤형 돌봄 제공

고령자 포괄적 돌봄 프로그램

HeritAge PACE는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혁신적인 'PACE (고령자를 위한 포괄적 돌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ACE 프로그램은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및 사회 복지 서비스로, 원할 경우 집에서 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HeritAge PACE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의료, 생활지원, 비용 지원의 세 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된다. 의료 서비스로는 주치의와 전문의의 정기적 진료, 전문 간호사의 건강 관리, 물리치료, 작업치



HeritAge PACE는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혁신적인 'PACE (고령자를 위한 포괄적 돌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독교일보

료, 언어치료, 처방약 관리 및 영양 상담 등이 포함된다. 생활지원 서비스에는 사회복지사의 개별 상담, 가정 방문 돌봄, 주간보호센터 이용, 교통 지원 및 가족 돌봄자 교육

이 포함되어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HeritAgePACE는 한국 문화와 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있어 언어장벽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식을 포함한 맞춤형 식단 제공, 전통 건강 관리 방식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특별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다.

HeritAge PACE의 참여 대상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요양원 수준의 의료 케어가 필요하면서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 가능한 분들이다. Medicare와 Medicaid 가입자는 추가 본인 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 이용자에게도 맞춤형 비용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빗 고 사장(HeritAge PACE)은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르신들이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친숙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오랜 경험을 가진 시니어케어 전문가로서 혁신적 돌봄 서비스 모델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Dr. Young-Jik Lee, Medical Director는 30년 이상의 내과 전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히 관리하며, 고혈압, 당뇨병, 호흡기 질환 등 만성 질환 관리에 특화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문의는 전화(888-804-1118), 이메일 (info@HeritAgePACE.org), 웹사이트(heritagepace.org)를 통해 가능하다.

토마스 맹 기자
주소: 1818 S Western Ave Suite 100, LA CA 9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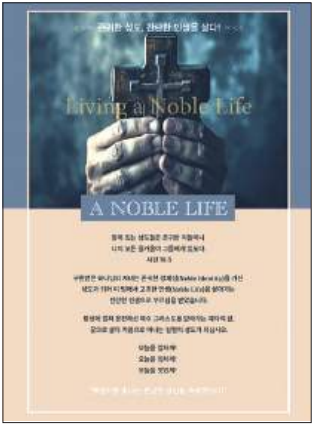
청년사역 개척한 인진한 목사, 10년 만에 LA에 돌아온 이유는?

30여 사역 돌아보며 〈노블 라이프〉 집필

인진한牧사는 한국에서 청소년 방송 사역을 하던 중, 92년 미국에 와서 남가주 사랑의교회 부교역자로, 그리고 엘에이 한인타운에서 크리스천을 위한 컴퓨터자 복합 문화공간 “향기나는 숲”을 무료로 운영했다. 또한 청년을 위한 햇빛교회를 시작해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17년 간 묵화, 문화 선교, 잡지 발행 사역을 감당했다. 과거 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에게 마음이 기운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제가 LA한인타운에서 청년을 위한 문화사역과 교회를 시작한 것은, 제가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살던 때 교회가 삶에 버팀목이 되어준 기억때문입니다.”

인진한牧사는 2015년 LA 사역을 마무리하고, 뉴욕으로 건너가 뉴욕장로교회(선임), 예수교회(담임)에서 묵화 사역에 전념했다.

작년, 그는 다시, 청년들과 동고동락했던 그의 삶이 묻혀 있는 LA로 돌아왔다. 지난 10년동안 여러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점점 청년사역이 사그라지고,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의 30년간 사역을 반추하며 〈노블 라이프〉를 집필했고,



책 〈노블 라이프〉.

또한 이 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기독교일보에서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의 책 〈노블 라이프〉와 그의 새로운 사역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 시대는 성도들을 향한 유혹과 도전이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고귀한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며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믿음의 영적 분별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성경적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여겨 본서를 준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귀한 성도는 세상과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본서는 성경적 성도론과 제자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만나다. 예수님을 귀담다. 예수님을 빼닮다. 예수님을 따르다”로 크게 4가지 주제를 나누고, 각 주제에 맞는 20가지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존귀한 성도는 고귀한 믿음으로 찬란한 인생을 산다.”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초신자, 청년,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거나 영적 무력감에 빠진 분들에게 삶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돕고, 사명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제목, 내용, 문장, 단어, 예화, 적용등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 시대의 절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유행하는 방법들을 교

회가 도입하는 프로그램들을 중단하고, 성경적, 복음적, 사명적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교인의 만족을 위한 탁아소, 끼리끼리 누리고 즐기는 유람선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회복을 위한 영적 훈련소, 구원을 위한 희망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에 존재하도록 구원, 복음, 희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실행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야 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존귀함’은 세상에서 강조하는 자존감이나 자기긍정과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노블’(Noble), ‘존귀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의 자녀를 존귀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이 맘에 들지 않아도, 지금 살고 있는 인생에 회의감이 들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아야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세상과 사람앞에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평가를 기준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

신은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성도의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도의 정체성이 찬란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신다면?

‘찬란한 인생 재단’의 모든 사역은 〈노블 라이프〉 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존귀한 성도의 찬란한 인생’이라는 주제의 말씀 선포와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의 영적 자존감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같은 주제로 새로운 형식의 소그룹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에 교재 및 다양한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 찬란한 인생을 위한 말씀 선포(예배, 집회, 수양회, 특히 청년부)
 - 2) 영적 분별력과 찬란한 인생 세미나
 - 3) 소그룹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지원
- ‘노블 라이프’ 책은 판매하지 않고 가능하면 많이 배포하려고 합니다. 재단사역을 위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교회나 개인이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 : 213-696-7770

책 주문 : xnoblife@gmail.com

인스타그램: xnoblife

정리: 주디 한 기자

APU	MICA	RUTGERS	UC BERKELEY	UCI	U OF I URBANA
BIOLA	MOUNT ST MARY'S	SANTA CLARA UNIVERSITY	UC DAVIS	UCSD	UNIVERSITY OF PITTSBURG
BOSTON UNIVERSITY	NORTHEASTERN	SCAD	UC MERCED	UCSB	U OF M TWIN CITIES
DREXEL UNIVERSITY	NYU	ST LAWRENCE UNIVERSITY	UC RIVERSIDE	UCSC	U OF WASHINGTON
FORDHAM UNIVERSITY	PARSONS	SYRACUSE	UC SANTA CRUZ	U OF ARIZONA FLAGSTAFF	UNIVERSITY OF THE PACIFIC
LMU	PEPPERDINE	TEMPLE	UCLA	U OF I CHICAGO	VIRGINIA TECH

**Now Enrolling for the
2025-2026 School Year!**

(213) 487-5437

ncahuskies.org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남가주 교협, 산불 재해 ‘후원 감사의 날’ 개최

한국 대학생 방문단 지원, 친선
탁구대회, AI 세계 선교대회,
8.15 연합예배 등 계획

남가주교협(회장 샘신 목사)이 ‘후원 감사의 날’을 11일 오전 11시에 평화교회(김은목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남가주교협이 신년 하례회를 여는 것을 취소하고 진행한, 지난 1월 발생했던 알타데나 지역 산불 재해를 돕고 지원하는 데에 후원의 손길을 펼친 단체 및 개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장 샘신 목사는 “지금까지 교협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준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식사의 자리를 준비했다”며 “



남가주교협(회장 샘신 목사)이 ‘후원 감사의 날’을 11일 오전 11시에 평화교회(김은목 목사)에서 개최했다. ©기독일보

앞으로 이어질 하반기 사역에도 변함없는 기도와 격려로 동행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날 후원의 손길을 건네준 단체와 개인들에게 감사장이 전달되었으며 하반기 교협 사역 소개의 시간

이 이어졌다. 남가주교협은 7월 1일부터 13일까지 한국 대학생 미국 방문단 지원 사역, 7월 12일 교회, 단

체 친선 탁구대회, 8월 초에 AI 세계 선교대회 참여, 8.15 연합예배 및 ‘블레스’ 프로젝트를 펼칠 예정이다. 이 연합예배는 1세와 2세, 영어/한국어 찬양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젊은 목회자 초청 토요일 릴레이 초청 집회, 9월에 남가주 교회 사모 위로회, 10월에 남가주 친선 족구대회, 10월에 사랑의 쌀 나눔 사역, 대학 대학원생(유학생 등)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감사의 날 예배에서는 정해진 목사(증경회장)가 ‘삼겹줄의 교훈’(전도서 4:9-12)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남가주교협임원단이 특별찬양을 했다. 토마스 맹 기자

제2차 시니어 세미나, 실질적 사역 방향 모색

참석자 소그룹 토론 및 발표회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나뉨

CPU 평생교육원 주최 제2차 시니어 세미나,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가 10일(화) 홀러튼장로교회에서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시니어를 교회 동역자로 세우고, 실질적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성기 목사(PGM 국제대표)는 ‘시니어를 전문인 선교사로!’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시니어 세대의 새로운 사명과 가능성을 일깨웠다. 이성희 목사(PULI 원장)는 ‘미주한인 교회 시니어 사역 현황 조사결과’를 최초로 공개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사역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송병일 목사는 ‘시니어 목회 프로세스’ 강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점심시간 이후 진행된 소그룹 토의 및 발표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각 조로 나뉘어 ‘시니어 사역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발표회에서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 ‘시니어 전문 상담사 양성’, ‘유급 봉사단’, ‘AI 시대에 맞는 시니어 교육’ 등 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제안들이 공유되어 참석자들의 큰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 한 참석자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미나를 총괄 진행한 CPU 평생교육원 황성만 목사는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미주한인교회들이 연합하여 시니어 사역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CPU와 부설 평생교육원은 미주한

인 커뮤니티의 재교육과 평생학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오는 9월부터 ‘시니어 사역 전문가 Certificate 과정’을 개설하여, 시니어 사역에 대한 신학적, 실제적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들을 본격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본 과정은 시니어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역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미나 및 ‘시니어 사역 전문가 Certificate 과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CPU 평생교육원으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CPU 평생교육원
문의: CPU 평생교육원 황성만 목사 (puli_pm@cpu.edu, 1-562-536-0128)

제1차 AI 세계선교대회 개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미래 선교 전략을 제시할 ‘제 1차 세계선교대회’의 개최 계획이 6일 LA온누리교회에서 열린 AI 세미나 현장에서 공개됐다.

GMU, AI연구소연합,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샘신 목사)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25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ZOOM과 YouTube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AI 기술을 목회와 선교, 교육 현장에 접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룬다. 20여 명의 AI 전문 교수진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 실행위원장이 이충희 GMU AI융복합연구소장은 “AI 기술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이를 선교의 도구로 삼아 미래 세대를 준비시켜야 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사역자들이 AI 활용 역량을 갖추고, 특별히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선교지 학생들이 AI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가비는 \$20... 전 수익은 선교지 장학기금으로 사용

참가비는 1인당 20달러(한화 약 3만원)이며 등록자는 모든 강의 참여와 자료 제공, 녹화 다시보기 서비스는 물론, 대회 이후 선교지에서 진행될 AI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얻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비 수익금과 후원금을 전액 선교지와 빈곤국 학생 AI 교육 지원을 위한 매칭 펀드로 조성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AI 교육이 필요한 전 세계 선교지의 학생 400명을 선발해 무료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디 한 기자

강의일정
1일차(8/4): AI와 목회
2일차(8/5): AI와 선교, 교육
3일차(8/6): AI와 비즈니스 및 기타
문의: AIDirector@gm.edu (이충희 실행위원장) www.AXMission.org



제2차 시니어 세미나가 홀러튼장로교회에서 개최되었다. ©CPU 평생교육원

→ 1면 기사 <중동 긴장 속 기도 촉구>에 이어서

교황 레오(Pope Leo)는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스포츠 회년’ 행사 중 중동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 누구도 타인의 존재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모든 당사자에게 책임감과 이성을 갖고 대응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 위협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정의, 형제애, 공동선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평화가 필요하다. 모든 국가는 평화의 길을 지원하며, 화해의 과정을 시작하고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Sir Keir Starmer) 총리는 “자제와 냉정, 외교 복귀”를 촉구하며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의 중이라고 전했다.

NEW 2025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여름맞이 스페셜

0%

APR Financing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NEW 2025 HYUNDAI

Kona SE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한인 메카닉 서비스

한인 메카닉 서비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Such Great Faith” ... 예수님이 감탄한 믿음의 조건

지난 6월 16일, 웨스트힐 장로교회(오명찬 목사)는 파더스데이를 맞아 마태복음 8장 5-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왕이 베푸신 기적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큰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다.

오명찬 목사는 백부장의 믿음에 주목하며, 이 ‘큰 믿음’은 헬라어로 ‘토사우텐 피스틴(τὸσαύτην πίστιν),’ 영어로 ‘such great faith (이렇게 큰 믿음)’으로 번역된다고 하며, 이는 신약성경에서 ‘믿음’에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직 이 백부장에 게만 단 한 번 부여하신 극찬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마 8:10; 눅 7:9).

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기쁘게 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헤드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 목사는 백부장

의 믿음의 세 가지 특성을 제시하며 설교를 이어갔다.

그는, 백부장이, “티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다”라고 말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의 ‘하인’이 ‘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백부장은 인간으로서 어떤 권리도 부여받지 못한 ‘둘로스(doulos)’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엔티모스(ἐντίμος)는 ‘영예로운’, ‘존귀한’이란 의미를 지닌다. 백부장은 낮은 노예조차도 존귀하게 대우했다.”

그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유대 문화’를 배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



웨스트힐장로교회오명찬목사. ©기독교일보

에 들어오는 것을 만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백부장에 대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

나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백부장이, 로마의 식민지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착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며,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관된 나라뿐만 아니라 백부장처럼 자신과 전혀 관계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며, 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한 기도를 촉구했다.

“백부장의 큰 믿음은, 자기 나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타국도 사랑하는 믿음이었다. 미셔널 마인드가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큰 믿음이었다.”

그의 믿음의 마지막 특징으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

동으로 이어진 믿음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흘려 주시지 않고 그냥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있는가? 말로만 하는 사랑,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믿음도 똑같다. 우리 믿음이 행동의 열매가 없다면, 믿음이 아니다.”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사랑의 증거였다. 선교사들이 학교나 교회를 짓기 위해 수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백부장의 회당 건축은 그의 믿음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는 것을 행함으로 살아낸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웨스트힐 장로교회는 40주년 기념 칸타타대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6월 선교의 달을 맞아 특별 초대석도 진행하고 있다. 조셉 리 기자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2025년 학위수여식 거행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는 6월 14일(토) 오후 2시 30분, 찬양교회 본당에서 2025년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졸업식은 제1부 졸업예배와 제2부 학위수여식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진건호 박사(교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졸업예배에서 엘리야 김 총장이 발립보서 2장 5-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광고와 찬송 후 김인철 목사(RPCA 증경총회장)가 축도했다.

제2부 학위수여식은 이경화 박사(신학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은주 권사의 개회사, 국민의례, 찬

송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이학진 박사(학생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신학사(B.Th) 6명, 목회학 석사 8명, 신학 석사 5명, 목회학 박사 1명(피터 원), 신학박사(Th.D) 1명(양승수), 명예신학박사 Joey Baltazar, 철학 박사(Ph. D) 김인숙 박사가 학위를 받았다.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 샘신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이정현 목사(한기총 미주 대표회장), 등의 축사 및 권면이 이어졌다.

졸업생 대표 답사는 서진건 장로가 맡았다. 이윤준 기자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제49회 총회

GAWPC세계예수교장로회(이하 GAWPC) 제49회 정기총회가 6월 3일(화)부터 5일(목)까지 LA 메리데교회(고귀남 목사)와 더블트리 힐튼 LA에서 “하나님의 시간-God’s Timing(전 3:1)” 주제로 열렸다. GAWPC는 37개 노회 산하,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5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와 목사 10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첫날 오후 7시 메리데교회에서 드린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고귀남 목사(미주서부노회) 인도로 시작되어 총회장 황현조 목사(동부노회) 말씀 선포, 총회회계 김춘경 장로(가주노회) 헌금 기도, 테너 최원현(멜리데교회) 헌금특송, 총회총무 김우현 목사(다음세대노회) 광고, 증경총회장 박헌성 목사(가주노회) 축도로 드렸다.

총회장 황현조 목사는 ‘선한 정치기의 비전’(벤전 4:7-11) 제목의 말씀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각양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선한 정치기’가 되는 것에 있다. “우리 모두 선한 정치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되어 사역하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칭찬받는 선한 정치기의 비



세계예수교장로회 제49회 정기총회가 6월 3일-5일까지 LA 메리데교회와 더블트리 힐튼 LA에서 “하나님의 시간”이란 주제로 열렸다.

전을 갖자”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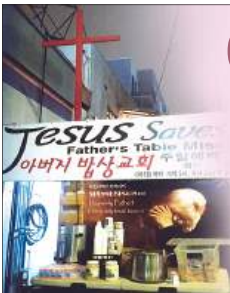
증경총회장 손경호 목사(북가주노회) 집례로 시작된 성찬예식은 손경호 목사 ‘성찬의 의의’(고전 11:23-29) 제목의 말씀선포, 장로 총대들이 섬긴 분병분잔, 다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를 찬송한 후 증경총회장 김정도 목사(대서양노회) 축도로 마쳤다.

인형식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 곳은 1906년 4월 아주사 부흥운동이 시작된 장소다. 그때의 부흥을 꿈꾸며, 이번 총회가 새로운 부흥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제49회기 임원: △총회장: 고귀남 목사(멜리데교회, 미주서부노회)

△부총회장: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 서가주노회) △장로부총회장: 이영근 장로(필라 동지교회, 대서양노회) △서기: 강은덕 목사(늘새론교회, 가주노회) △부서기 박한기 목사(꿈이있는교회, 워싱턴노회) △총무: 김우현 목사(다음세대노회, 이레교회) △회록서기: 임인철 목사(라스베가스 중앙장로교회, 라스베가스노회) △부회록서기: 크리스토퍼 양 목사(휴스턴 새생명교회, 중남부노회) △회계: 김춘경 장로(LA서부열린문교회, 가주노회) △부회계: 김철연 장로(베이스사이드장로교회, 뉴욕노회)

이윤준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기호, 김중언, 고송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센터메디컬 클리닉
플러튼 지역
가정의학 전문의

나 조이스리 는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하루에 몇 명을 진료했는지보다, 환자 한 분 한 분과 **진정성** 있게
마주하는 진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특히,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을 안고 계신 **어머님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주 한인 사회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714-519-3024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센터메디컬 클리닉
LA동부 지역
가정의학 전문의

나 송홍우 는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LA 동부 지역에 계신 시니어분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제 지식과 진심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부모님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626-363-4661

19115 Colima Rd, Unit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역
내과 전문의

나 임유일은
센터메디컬그룹을
신뢰합니다

저는 **의사의 역할**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함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나 턱관절 문제로 오랜 시간 삶의 질이 떨어진 채
지내오신 분들이 **보톡스**와 **PRP 주사치료**를 통해 편안함을 되찾고,
다시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회복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따뜻한 진료**를 실천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714-583-8569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센터메디컬 클리닉
OC 지역
정신과 전문의

나 고제득 은
센터메디컬그룹을
신뢰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자라온 1.5세로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울, 불안, 조울증 같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치매, 수면장애, 공황과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지친 분들까지,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환자 중심의 따뜻한 진료, 그 **삶에 온기**를 더하는 길을
저는 지금 **센터메디컬그룹**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플러튼 지점 714-519-3024
가든그로브 지점 714-583-8569
로렌하이츠 지점 626-363-4661

© 센터메디컬그룹

“전 세계 인구 중 기독교인 비중 최다… 성장 속도는 이슬람이 최고”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이지만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했다.

2천7백건의 인구조사와 설문조사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억 2천1백60만 명 증가하여 약 23억 명에 달했다. 2020년 기준 약 78억 명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인구 중 기독교 인구는 1.8%p 감소한 28.8%를 기록했다.

반면,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20억 명으로 3억4천7백만 명이 증가했다. 전 세계 인구에서 무슬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1.8%p 증가한 25.6%를 기록했다. 이 연구는 또한 무슬림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 집단으로 꼽았다.

연구자들은 전 세계 인구에서 기독교인 비중 감소의 가장 큰 원인



©pixabay

은 종교적 이탈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종교적 이탈이 전 세계 인구에서 기독교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주로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의 종교적 이탈은 무종교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무종교인으로 분

류되는 사람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2억7천10만 명 증가해 총 19억 명에 달했다.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분의 1, 즉 24.2%를 차지한다.

연구자들은 종교적 이탈과 종교 전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117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기독교인들은 개종으로 가장 큰 순손실을 경험했다(신자 1.0명당 기독교인 3.1명).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 대부분은 더 이상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지만, 일부는 다른 종교에 속한다고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중국은 무종교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중국 인구의 약 90%인 13억 명이 무종교인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20년 종교적으로 무관하다고 밝힌 사람이 약 1억 1백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10년 전보다 97%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현재 유럽을 넘어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기독교인의 30.7%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반면, 유럽에는 22.3%만이 거주했다.

대부분 국가(약 120개국)는 여

전히 기독교가 다수인 국가로 남아 있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무종교가 종교적 지형을 천천히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영국(49%), 호주(47%), 프랑스(46%), 우루과이(44%)에서 기독교 인구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각 지역에서 무종교인들이 현재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슬림, 힌두교도, 불교도, 유대교도 또는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같은 소규모 종교 집단은 전체 인구의 11% 이하”라고 밝혔다.

분석 기간 동안 무종교인은 네덜란드(54%), 우루과이(52%), 뉴질랜드(51%)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무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한 나라는 중국, 북한, 체코, 홍콩, 베트남, 마카오, 일본이었다.

이미경 기자

[이전호 ‘진화론, 창조론 공격’ 기사 이어서]

그러면서 “진화론자들은 기독교 창조론의 터를 무너뜨릴 때 사회주의, 마약, 가정파괴, 안락사, 페미니즘, 학교 폭력, 문화 막시즘, 동성애 등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며 “제일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창조론을 무시하고 유신진화론을 주창하며 ‘팀킬’하는 존재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한 기독교방송 유튜브에선 유신진화론을 설파하고 있다. 또 한 신학대 교수는 유신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이 학교는 결국 유신진화론의 폐해를 인식하고 그를 징계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언론은 해당 교수를 사학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로 인식시켰다. 이처럼 유신진화론은 교묘히 교계에서 파리를 틀고 있다”고 했다.

노 대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창조신앙에 입각해 다음세대들에게 창조-타락-구속-하나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등의 반대까지 금지시켜 사실상 지지 수용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를 초래한다”며 “그 결과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를 만연케 해 개인과 가정 및 사회의 건전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회개 없이 음행이나 동성애에 탐닉하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6장 9-10절에 따라, 다음 세대들이 회개 없이 동성애 행위를 계속하여 불의한 자들로 남도록 함으로써, 영원한 지옥 심판의 길로 유혹하는 위험한 법률”이라고 했다.

또한 “서구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목사로 안수하고, 동성애가 성경적 죄가 아니라고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다. 특히 목사가 동성결혼식을 집례하는 등 심각한 영적 간음과 배도에 빠졌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구교회의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분열돼 방어력을 상실한 데 있다”며 “이는 성경의 절대적 신적 권위를 믿는 교회는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입장,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인하고 인간의 책으로 보면서 비평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는 동성애 등을 수용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분열된 탓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서구교회는 18세기 말 칸트가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를 저술한 뒤 이성을 기초로 신학을 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독일 등지에서 이성에 최고 권위를 부여하

며 성경무오설을 거부하고 성경비평을 발달시켰다”며 “이후 성경의 오류를 전제로 성경비평을 수용하는 독일 신학이 발전되면서 21세기인 현재까지 세계 신학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 결과 목회자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이 근본부터 붕괴돼 갔고, 교회 성도들의 믿음 붕괴로 이어지며, 결국 교리적 일탈이 가장 극심한 자유주의 신학적 주장을 용납하게 됐다”며 “그러자 쿠퍼신학마저 용납하며, 동성애에 반대하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 역량을 상실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대 성경비평을 강력히 부해야 한다고 경고한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다.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는 1881년 유럽의 거의 모든 신학교들에서 행하는 성경 비평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음을 경고했다”며 “영국의 찰스 스펔전은 1887년 ‘내리막길 논쟁’을 주도하며 성경비평을 용납하는 침례교연맹을 탈퇴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그레샴 메이첰는 1923년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저술하여 성경비평을 용납하면서 자유주의화되는 미국교회들에게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님’을 논증했다. 또 메이첰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자유주의 화로 결국 성경비평을 불허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건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틴 로이즈 존스

는 1966년 영국 복음주의자 총회에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인하는 성경비평 용납자들과 결별을 요구했다”며 “프란시스 셰퍼는 『오늘날 교회의 사명』에서 성경비평의 용납은 영적 간음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복음주의의 붕괴를 경고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성경비평 신학을 막아내어 동성애 등에 저항하는 곳은 남침례교단, 개혁주의적 장로교단(PCA, OPC) 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2007년 차별금지법 발의 이래 2024년까지 18년째 이를 저지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성공의 직접적 원인은 한국교회가 교파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성경 믿는 신앙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회연합단체들인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등 모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역 목회자들의 개별적 면담과 강력

한 설득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저지 등에서 거두고 있는 기적적 성과는 바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에서 복음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의 비중은 90% 이상이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신앙이 확고히 유지되는

까닭은 조선 선교 초기 성경 무오성을 견지하는 선교사들 덕택이다. 이러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경향성은 교회 성장에 크게 일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03년 하디의 원산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1920년 평양신학교 출신의 길선주 김익두 목사 등이 주도한 장로교 부흥, 1930년대 성경교 부흥 등이 그 예다.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잇따른 분열에도 대다수 교단들은 성경완전 무오성을 신조 1조로 견지하고 있다. 이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장로교 중 성경비평을 용납하는 소규모 교단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뿐이다. 물론 기장에도 동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은 기장의 차별금지법 찬성 흐름에 반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장에서도 교단의 부흥과 성장을 주도한 것도 이 중표 목사의 한신교회 등 복음주의적 교회들이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신학교들은 성경의 완전 무오성을 훼손하는 강의를 금지해야 하고, 그래야 미래의 목회자들이 성경 믿는 신앙을 지켜 성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거룩한 사명이다”라고 했다.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봇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봇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탈봇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봇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div>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div>	 <div>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div>	 <div>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div>	 <div>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div>
 <div>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div>	 <div>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div>
 <div>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div>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 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 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김귀보 목사 설교 세미나 2

"내러티브 설교로, 설교의 해상도를 높이라"

김귀보 목사 초청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가 6월 9~10일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성경 본문의 시공간성과 내러티브적 맥락을 회복시켜, 보다 입체적인 설교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2강: 내러티브를 위한 이해

그는 내러티브 설교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성경은 구전으로 전달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화되었다. 2) 원래 화자, 청자가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그 상황이 머릿 속에 그림으로 그려졌다. 3) 성경이 문자화되면서 요약, 축약, 상징화의 과정을 거쳐 기록되었다. 4) 현재의 독자와 청자가 있다. 원청자와 현재의 청자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상황, 문화, 풍습, 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성경을 읽어도 시간과 공간 개념이 살아나지 않고, 머릿 속에 정보로만 맴돈다. 5) 설교자는 연구, 해석, 전달의 과정을 거쳐 문자화, 경전화된 말씀을 살아 있는 말씀으로 되살려서 전달해야 한다."

이어서, 내러티브의 뼈대로 '시간, 공간, 인물, 사건'을 제시하며, 이 네 가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귀보 목사가 지난 9일, 본사 주최로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열린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에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실제 사례를 나눴다.

"이 네가지를 선명하게 밝힐 수록 메시지가 살아나고, 흥미로워지고, 상상이 되고, 듣고 싶어진다. 사진도 픽셀이 높을 수록 사진이 선명해지듯 설교도 계속 연구해서 디테일을 살려내야 한다."

그는 이어서 지리적 시공간, 문화적 시공간, 율법에 따른 시공간을 통해 내러티브적 접근법을 소개했다.

지리적 시공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 날이 저물어 가는 때, 엠마오에 이른 후,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사실이 근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표현하기 위해 시간과 거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과 거리는 사랑의 표현이다. 시간과 거리 속에 드러난 마음을 찾아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며, 성도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면들에 대해 스스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람과 요셉의 매장지가 다른 이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슬에 대해, 모르드개가 베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규정을 알면서도 베옷을 입은 이유,

이스라엘의 장례문화, 이스라엘 정결법, 안식일에 이동 가능한 거리 등을 통해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문화적 시공간- 이스라엘 장례문화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오겠다는 제자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례문화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장례 문화를 알아야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묘는 가족 묘이다. 돌 문으로 막혀 있다. 들어가면 중앙에 사각 돌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 이 위에 시체를 올려 놓는다. 1년이 되면 뼈만 남는다. 1년이 지나면 구덩이에 넣는다. 구덩이에는 조상들의 뼈가 다 묻혀 있다. 이것을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장례는 7일이면 끝난다. 일년 뒤에 다시 모여서 뼈를 넣으면 장례가 완성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핑계대지 말라는 말이다."

율법에 따른 시공간- 정결법,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는 시간과 공간과 관련해 이스라엘 정결법의 중요성에 대해, "레위기를 알아야 성경 전체가 이해된다. 레위기가 성경 66권에 다 퍼져 있다"고 강조했다.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고치실 때 왜 손을 얹었을까? 여기서 뒤집어진다. 유대인들은, 나병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 왜 굳이 만지셨을까? 한 번도 사람이 자신을 터치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터치했을 때, 이 마음까지 힐링이 이루어진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가버나움에 방문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낭떠러지로 끌고가 떨어뜨리려 하되, 예수님께서는 의연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버리셨다"(눅 4:29)는 미스테리한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안식일 이동 규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그는 내러티브 설교라고 할 때, 사람들이 '구성 형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오해한다며, 그렇게 잘못 이해할 때, "설교를 짝 짜여진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을 받는다며, 그것이 아니라, "Text encountering preaching"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성경 본문을 연구해서 성경의 원 청자, 독자에게 들려진 내용, 전달방식을 찾아 내어 현대 청중에 맞게 재구성해서 들어주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본문을 내러티브로 볼 수 있다."

주디 한 기자

→ 1면 기사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에 이어서

"손양원은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때맞는 것, 학교 못다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나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일려는 각오로 충만했다. 손양원은 자라서 목사님이 되었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용서하여 양아들을 삼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었고, 한국 기독교를 예수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한알의 밀알이 되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그는 성경 암송 대회 준비를 독려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위기를 극복할 길은 말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자녀에게 말씀 아니면 희망이 없다. 세상이 자녀들의 영혼

을 도둑질하고 있고, 세속적인 것만 인풋되어 말씀이 들어갈 틈조차 없다"며, 부모가 본을 보이고 말씀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양육이라며 파라과이에서 사역할 때의 경험을 나누었다.

"파라과이 사역할 때 거친 자녀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깨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분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제게 물었을 때, '아이 앞에서 성경을 쓰라'고 했다.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기 전부터 아이가 학교 갈 때까지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쓰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쓰셨다. 제가 있는 동안 성경을 여덟 번 쓰셨고 그 아이가 훌륭하게 변화되었다."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아버지는 자녀의 영적 교사"

에베소서 6:4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한 한기홍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아버지의 자질"을 통해, 아버지는 영적 인도자이자 교사라고 강조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짧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기, 자녀의 질문에 성경적으로 답해 주기, 가정예배와 기도 시간을 마련하기 등을 제시했다.

또한 아버지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 정직한 삶, 감사와 겸손의 태도, 실수 인정과 용서, 개인 건강 생활,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와 봉사를 권면했다. 무엇보다 좋은 아버지는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의 감정을 공감하며, 꿈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신앙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디 한 기자

→ 1면 기사 <美 목회자 정신 건강 위험>에 이어서

치료사 12%, 전문 멘토 11%, 전문 상담사 9%, 결혼 상담사는 3% 등, 치료사나 상담사 등을 통한 전문적 지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목회자의 삶을 '관계, 소명(직무 만족도), 재정, 건강, 신앙' 등 5개 영역에서 0~100점으로 평가했다. 전체적으로는 목회자의 평균 '번영 점수'(flourishing score)가 76점으로, 성인 평균(71점)보다 높게 나왔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목회자들은 관계 영역에서 성인(79점)과 실천적 기독교인(85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67점을 기록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부문에서도 69점을 기록해, 성인(73점)과 실천적 기독교인(79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재정 부분에서는 70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 성인(62점)

과 실천적 기독교인(66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다.

특히 관계성과 정신적 안녕(Well-being) 부문은 일반인보다도 낮은 점수를 기록, 목회자들이 인간관계 및 내적 건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목회자들이 정작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관계(67점)와 정신적 건강(69점)이 가장 낮았음에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 요구는 거의 없었다"며 "자신의 가장 큰 필요를 잘못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정기적인 영적·정서적 지원을 받는 목회자일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고, 반대로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진 목회자일수록 외부 지원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장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가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 +tax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밀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 +tax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다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 +tax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생친구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여부 오후 1:00
KM대학친구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섬김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령강화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강화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우영담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 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령강화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이종용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미국 아칸소주 십계명 게시 법안 위헌 소송 제기

미국 아칸소주에서 공립학교 교실마다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새 법안이 위헌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아칸소주 주민 가족들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국국가와교회분리연합(AUSC),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FRF)은 공동으로 아칸소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정부가 공립학교 내 모든 교실과 도서관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새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가 올해 초 서명해 공표했으며, 오는 8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모든 공립학교가 교실과 도서관 내 눈에 띄는 곳에 십계명을 인쇄물 형태로 게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가족들은 유대교, 기독교계 유니버설리스트, 무종교자 등 다양한 신앙 배경을 지닌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십계명 게시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정부가 종교적 우물을 선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장에는 “학생들이 매일 교실에서 기독교 중심의 십계명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선택권 없이 특정 종교를 접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신념을 침해하고 교육환경을 왜곡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원고 중 한 명인 사만사 스티븐슨은 보도 자료에서 “어린 자녀들이 하루 종일 원하지 않는 종교적 메시지와 함께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은 종교 사상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공립학교의 중립적 교육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법은 루이지애나주에서 최초로 통과됐으나, 올해 1월 1일 시행 직전 연방 법원이 긴급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판결은 해당 주의 다섯 개 학군에만 적용됐지만, 이후 십계명을 실제로 게시한 다른 학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아칸소주에서는 페이트빌, 벤턴빌, 실로암스프링스, 스프링데일 등 네 개 학군의 교육청이 피고로 지목됐다. 페이트빌 교육청 대변인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언급을 삼가겠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교육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아칸소주 법무장관 팀 그리핀은 “이번 소송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미국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 보장 조항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공립학교 내 종교적 표현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향후 다른 주의 유사한 입법 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 전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은혜 기자

美 텍사스 학군, 학생의 성경구절 배포 금지 철회

말씀도 나눴다. 이에 피리시아 마이너(Phylicia Miner) 교장은 5월 12일 그 학생을 질책하고, 성경구절이 적힌 자료를 압수했다. 그로부터 3일 후인 5월 15일, 그는 다시 그 학생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해 “학군 정책은 학교 내에서 어떤 종교적 자료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전했다고 ACLJ는 밝혔다.

이에 ACLJ는 해당 학생과 그의 양어머니를 대신해 킬린 학군에 서한을 보냈으며, 1969년 미국 대법원의 키팅 대 디모인(Tinker v. Des Moines) 사건 판결을 근거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는 항상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텍사스주 킬린 시더 애비뉴 초등학교 학생이 공유한 여러 성경구절 쪽지. ©ACLJ 제공

또 미 연방 5차 항소법원 판례를 근거로 “학생들은 교실 내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 비수업 시간에 종교적 자료를 배포할 권리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소송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 5월 22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학군은 기한 마지막 날에 입장을 철회하고 해당 학생이 성경구절을 배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서면 답변을 보냈다. 학군의 법무 담당자인 마이크 하퍼(Mike Harper)는 “학생은 비수업 시간에 종교적 자료를 배포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교실 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학교는) 이를 허용한다. 교장과 이야기를 나눴고, 향후 이와 같은 정책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ACLJ의 조던 세쿨로우(Jordan Sekulow) 총괄 이사는 이번 사건을 “종교의 자유와 학생 권리에 대한 중요한 승리”로 평가하며, “이는 단지 한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권리를 보호하는 승리”라고 밝혔다. 세쿨로우 이사는 또한 “우리는 그녀를 지지하게 돼 자랑스럽고, 그녀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신성모독 혐의로 거짓 기소된 파키스탄 기독교인, 무죄 판결



감옥에서 출소한 후 어머니와 함께 있는 파르한 마시(오른쪽)의 모습. ©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Morning Star News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법원이 기독교인에 대해 제기된 신성모독 및 테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해당 기독교인의 신분은 자베드 마시이며 마시의 변호인 카시프 네마트(Kashif Nemat)은 검찰 측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히왈 지방 및 지방법원 판사이자 반테러법원 재판장인 지아 울라 칸(Zia Ullah Khan) 판사는 이날 마시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마시는 지난 1월 26일 사히왈 갈라 만디(Ghala Mandi) 경찰에 의해 이슬람과 그 성인에 대해 모독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법 295-A, 298-A 조 및 반테러법 제7조에 따라 체포·기소된 바 있다. 해당 고소는 지역 무슬림 주민 무함마드 빌랄 칸(Muhammad Bilal Khan)의 진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네마트 변호사는 마시가 합성 약물 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고소인 빌랄 칸은 자신의 동생 자말 칸이 마시와 친구로 지내며 함께 약물을 사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들어 경찰이 신성모독 사건에 테러 관련 조항을 병합 기소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이러한 절차에 대해 라호르 고등법원에 재판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는 검토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CDI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진술 간 모순, 그리고 사건 발생 후 경찰서가 불과 8km 거리임에도 5시간 이상 지나서야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시는 12일 저녁 석방됐으나, 신변 안전 문제로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사히왈 소재 개혁장로교회(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소속이었던 마시는 간호학 4년 과정을 마치고 병원에서 일하다 정신질환과 약물 문제로 2023년에 해고됐다. 그는 수감 중 중독에서 회복했으며 새 삶을 시작하길 희망하지만,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생계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아시아 변호 담당자 테흐미나 아로라(Tehmina Arora)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파키스탄 정부와 고등법원이 신성모독 혐의에 테러 혐의를 병합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급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될 경우, 사법적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로라는 “신성모독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질환 여성 등 수많은 사람이 그 정신 상태가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 기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에서는 무함마드를 모독할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없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신성모독 의혹만으로도 무슬림 군중의 폭력과 린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회정의센터(Center for Social Justice)가 발표한 2024년 ‘인권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파키스탄 내 신성모독 고발 건수는 총 34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70%는 무슬림, 6%는 기독교인, 9%는 힌두교도, 14%는 아흐마디아 교도였다.

최승연 기자

美 루터 신학교, 상부 캠퍼스 매각 계획 발표

미국 복음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의 가장 큰 신학교인 루터 신학교(Luther Seminary)가 상부 캠퍼스를 매각하고 더 작은 시설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지난 2월에 발표된 하부 캠퍼스 매각에 이은 것이다.

루터 신학교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사회가 캠퍼스를 매각하기로 한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약 370명의 대학원생을 위해 ‘더욱 빠른 모델’을 도입하려는 대학원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한다.

로빈 슈타이키 루터 신학교 총장은 “학생들이 사역을 배우고 준비하는 방식이 변화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자원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을 발전시킬 적기”라며 “이것은 끝이지만, 동시에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시작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루터 신학교는 150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설립 후 수십 년 동안 14번 이전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신학교에 참여하지만, 학교 측은 신학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사역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타인키 총장은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 교육이라는 우리의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

해 이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이 앞으로 변화될 것이다. 새로운 공간을 모색하고 더욱 민첩한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는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계층의 학생들과 학습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부 캠퍼스는 시장 가치가 870만 달러로 추산되지만 아직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들은 또한 필요에 더 적합한 새 캠퍼스를 찾을 때까지 2026-2027학년도까지 캠퍼스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다.

카를로스 페니 루터 신학교 이사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복음 중심, 학생 중심, 혁신, 그리고 공동체 중심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신학적 깊이와 학문적 엄격성에 대한 헌신을 이어가는 동시에 전 세계 교회와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감하고 충실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해 전략적인 대면 수업과 더불어 충실하고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 경험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16에이커 규모의 하부 캠퍼스 매각에는 로더데일과 세인트폴 지역의 부지가 포함되었다. 또한 노스웨스턴 홀, 스텝 홀, 브레이크 우즈드 매각 대상에 포함되었다. 루터 신학교는 하부 캠퍼스를 에디나에 있는 개발업체이자 다세대 주택 전문 업체인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에 매각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아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나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게교회)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움)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말-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교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오전)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목요일예배 오전 10:4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목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목)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index.php

주일예배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종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초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차에 스토리를 입히다”

차량 틴팅이 단순한 기술 작업을 넘어서, 차주(車主)의 개성과 삶의 철학을 담아내는 작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LA 토랜스(Torrance) 지역에 위치한 카멜레온 스킨 윈도우 틴트(Carmeleon Skin Window Tint)는 틴팅과 PPF(Paint Protection Film) 시공을 중심으로, 고객의 차량에 스토리와 감성을 입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공을 마친 차량 앞에서 포즈를 취한 Jay Kim 대표. “차에 개성과 안심을 함께 담아주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Jay Kim 대표는 “카멜레온 스킨 윈도우 틴트는 단순히 틴팅을 잘하는 샵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담은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오랜 시간 틴팅 현장에서 직접 작업해온 그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가족과의 시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샵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적인 틴팅은 기본에 ‘카멜레온’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차량마다의 개성과 오너의 스타일, 기능적 필요를 고려해 맞춤형 시공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틴팅의 시작이자 매력이라고 밝혔다.

많은 고객들이 카멜레온 스킨의 작업에서 ‘장인 정신’을 느꼈다고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완벽은 없지만, 더 나은 완성을 지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차량과 유리 상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까지 고려해 매 순간 집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기술보다 태도가 더 큰 완성도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고객이 차량을 맡기는 순간부터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카멜레온 스킨 윈도우 틴트는, 편안한 휴식 공간에도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다.

Jay Kim 대표는 “차를 맡는다는 건 단순히 차량이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함께 맡는 일”이라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 기분 좋게 쉴 수 있도록 향, 음악, 커피, 간식 하나까지도 정성스럽게 준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카멜레온 스킨 윈도우 틴트는 틴팅과 PPF 시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량 내외관에 개성과 감각을 더하는 커스터마이징 작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카페 수준의 커피바와 간식, 안락한 소파가 마련된 고객 대기 공간. “차 말기러 왔다가 힐링하고 간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라는 Jay Kim 대표

누구나 자기 차에 스토리를 담고 싶은 순간이 있다

Jay Kim 대표는 “누구나 자기 차에 스토리를 담고 싶은 순간이 있다”며 “그 감성을 기술로 구현해주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고 비전을 밝혔다. 차량에 색을 입히는 기술 너머로,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간. 카멜레온 스킨 윈도우 틴트는 오늘도 고객의 차와 마음에 정성을 더하는 ‘작은 공방이자 예술 공간’으로 그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김민선 기자
카멜레온 스킨 윈도우 틴트 주소: 1717 Torrance Blvd Unit #B, Torrance, CA 90501 전화: (310) 935-1245

온누리교회 예배 생방송 도중 ‘인공기’ 등장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가 18일 새벽예배 영상을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하던 도중, 화면에 갑작스레 북한 인공기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회 측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고 경위서’에 따르면 영상 송출되기 시작하고 28분 56초가 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인공기와 함께 배경음악도 흘러나왔다고 한다. 이 현상은 약 22초간

지속되다 다시 정상 화면으로 전환됐다. 교회 측은 현재 영상을 내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교회 측은 “본 사건은 외부에서 송출 신호 혹은 경로에 침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의도적 간섭(해킹)으로 추정된다”며 세 가지의 “해킹 경로”를 예상했다.

교회 측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것은 ‘스트리밍 키 유출’이다. 교회 측은 현재 모든 유튜브 관리

자 계정 비밀번호를 긴급 변경하고, 2단계 인증(OTP) 설정 재점검 및 적용을 강화했으며, 스트리밍 키를 전면 재발급 및 교체했다.

교회 측은 앞으로 송출 전후 전체 보안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자 계정 수 정비 및 보안 교육을 강화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 또는 유튜브 본사 보안팀과의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김진영 기자

B T 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5년 대박



SCAN ME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www.btssolar 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TALK BTSSola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요.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구봉주 칼럼

나의 장례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결혼예배, 장례예배와 같은 특별한 예배를 집례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예배는 예비부부

의 파릇파릇 새싹 같은 모습에 흐뭇해집니다. 믿는 형제 자매가 만나,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잠시 갈등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잘 살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반면에, 임종예배 장례예배는 신경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임종하신 분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진 거듭난 성도인가? 가족 중에 혹여,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없으신가? 혹여, 고인과 고인의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임종예배와 장례예배를 모두 집례한 어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듣기로 살아

계실 때, 아내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신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은 고인의 장례조차 참석하기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임종예배 때는 설교 중 둘째 자녀를 위로하고자 애썼고, 장례예배 때는 첫째 자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으나, 자녀들에게 남은 상처는 매우 깊어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그제, 고인은 임종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셨기를, 자녀들은 부모님을 용서하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길 바랄 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고인과 고인의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분들이고,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인 경우, 장례예배는 더 없이 평안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눈물

이 단순히 슬퍼서, 한이 남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 우리 모두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소망의 눈물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의 조사는 은혜와 감사가 넘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너무나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를 늘 웃게 해주시는 분들이셨습니다.”라는 조사가 흘러나옵니다. 유가족 모두가 고인이 천국 가셨다는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단지 지금 당장 볼 수 없음에 아쉬워할 뿐입니다. 매번 임종예배 장례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나의 장례도 이랬으면 합니다.

이주형의 시간의 지문

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속삭임에서 시작된다



이 주 형 대표
CM 홀딩스

은혜는 앞에서 시작된다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만일 은혜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느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인간 심리에서 기인한 지배의 구조일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은혜는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임한다. 그 은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관측’을 통해, 파동함수가 붕괴하듯 실존의 현실로 도래한다. 이제 은혜를, 양자물리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성찰해본다.

1. 양자물리학과 신학
관측 이전의 세계

양자물리학은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그러나 관측되기 전까지는 확률의 장(場)에 놓여 있고,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군가가 관측하는 순간, 전자는 명확한 위치와 에너지를 가진 하나의 실재로 붕괴한다. 신학적으로 이는 은혜의 본질을 사유하는 데 결정적 통찰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작위가 아니다. 그것은 하

나님과 만남을 통해만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난다. 은혜는 ‘알아보는 순간’에 비로소 나의 실존 속에서 확정된다. 하나님에 대한 얇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존재를 전환시키는 영적 관측이라 변론해 본다.

2. 은혜는 파동함수의 붕괴와 같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언어가 아니다. 물리학적으로는 하나의 결정적 사건, 즉 파동함수의 붕괴와 유사하다. 은혜는 단지 호의나 감정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한 인격 안에 구체화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인간의 준비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의 시선에 의해 관측될 때 현실화된다. 즉, 은혜는 단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열리는 영적 붕괴이자 확정이다.

3. 은혜는 심리적 지배가 아니다

현대심리학은 은혜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느끼는 감정’ 혹은 ‘종속적 수용’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하나님을 모른 채 느끼는 은혜일 뿐이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 투사이며, 위계적 지배나 인정 욕구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참된 은혜는 오직 인격적 관계 속에서만 드러난다. 양자얽힘(Quantum Entanglement)이 보여주는 것처럼, 두 입자는 떨어져 있어도 얽혀 있다면 하나의 상태를 공유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영혼이 얽혀 있는 존재적 실재가 있을 때에만, 참된 은혜는 인식된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주 도하시고, 인간은 거기에 응답하는 방식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고 고민해본다.

4. 은혜는 고백 이전에 실재한다

신앙은 흔히 “고백”으로 시작된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고백은 은혜의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양자물리학에서 관측은 이미 존재하던 파동함수를 확정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백은 이미 실재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관측’하고 ‘받아들이는’ 사건이다.

은혜는 인간의 결심이나 감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준비하셨고, 성도는 믿음이라는 관측을 통해 그 은혜를 현실로 수용할 뿐이다. 이것은 구원론의 핵심으로 설명가능하고, 은혜의 본질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다고 말해본다.

은혜는 앎과 결합된 실존의 사건이라 볼수있다. 은혜는 단지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른 채 체험된 은혜는 때로 심리적 위안이나 정서적 안정일 수 있으나, 그것이 참된 은혜라 단언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 속에 실제로 개입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은혜는 실존을 변화시키는 사건으로 발생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며,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양자적 지식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변증해볼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은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존재’에게만 실제로 관측되리라 본다. 그 관측은 믿음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실존 앞에 무릎 꿇는 지성의 항복이다. 그 순간, 은혜는 실존 속에 사건이 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 5장 8절)

하늘바라기

© pexels.com/Kaan Durmuş

기억하자 - 김은주

슬퍼질 때 기억하자
기쁨으로 인도하는 소리라고

외로워질 때 기억하자
함께 하기 위한 행복의 문이라고

삶이 어려워질 때 기억하자
더 좋은 삶을 위한
낮은 자의 훈련이라고

기억하자
주님은
한 순간도 떠나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라고

202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마곡 비자 (I-20) 발급

카카오오픈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만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 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커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 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허락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새벽기도

오전 9:30
오전 11:15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화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오전 10:00
오전 10:00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교육부예배
목요예배
토요새벽예배

오전 12:00
오전 12:00
오전 7:30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훈 담임목사



Los Angeles One Church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주일학교
목요종보기도회
새벽예

오전 11:00
오전 11:00
저녁 8:00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
오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310)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성경공부 및 기도회
https://www.facebook.com/chkho69

오전 10:00
금요일 오후 7:30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오전 11:00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성경공부(목)
셀모임(금)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11:00
오후 7:00
오후 7:00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기도회(주일)

오전 11:00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주일 2부
새벽예배
수요성경공부
금요일예배

오전 8:00
오전 10:30
오전 5:30(화-금), 6:30(토)
오전 7:30
오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EM/교육부
새벽예배
금요성구강구

오전 10:00
오전 10:00
오전 6:00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오전 11:00
오후 7:00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수요성령집회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11:00
저녁 7:00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킹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청년부예배

오전 9:30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

주일예배
어르신예배
금요일기도회

오후 12:30
오후 3:00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수요TEE성경공부

날 12:00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교회학교 & 유스예배
수요나눔 교역자
수요종보기도

오전 11:00
오전 12:50
오전 9:30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8:00
오전 11:00
오전 7:30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토요일예배
토요일새벽기도회

오후 12:00
오전 6:00(화-금)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목요일예배
토요일새벽

오전 10:40
오후 7:00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성경공부
새벽기도회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후 2:00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킴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주일예배
성경공부
새벽기도회

오후 1:00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소리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8:00
오전 11:00
오전 7:30
오전 6:00(토)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저녁기도회
금요절기기도
새벽기도 (월-금)

오전 11:00
오후 8:00
오후 9:00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성경공부 주일
아침기도회(온라인)
기도모임

오전 11:30
오후 1:30
오전 7:00(화-토)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주일학교 & Youth
금요성경기도회
청년부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오후 1시 30분
금요일 저녁 11:00
주요일 저녁 8시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수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

오후 12:00
오후 8:15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주일성경공부
수요일기도회

오전 11:00
오후 8:00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주일학교
금요youth모임
목요종보기도

오후 2:00
오후 2:00
오후 7:00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나눔 코이 모임

오후 1:00
오전 6:00(화-토)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주일성경공부
수요일기도회

오전 10:30
오후 7:30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주일예배
토요일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sdsgc@gmail.com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새벽기도회

오전 11:30
저녁 7:30
오전 5:30 (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주일학교
주요예배
파워워십 2번주 금요일 오후 8:00(영아) / 4번주 목요일 오후 8:00(영아)

오전 11:00(요청시)
오후 1:30
오전 11:00(요청시)
오전 8:00(영아) / 금요일 오후 8:00 (영아)
금요일 오후 8:00(영아) / 4번주 목요일 오후 8:00(영아)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12:27)



김영한 칼럼

예수가 받은 십자가형,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 (III)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상임대표

IV.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은 십자가에 처형된 자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은 사회의 안전을 깨뜨리는 위험한 범죄자들과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천민계층에게 실시되었다. 이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자들이거나 인간으로서 권리를 박탈당한 노예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로마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억압해야 하였던 집단들이었다.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는 슬로건 이면에는 로마 체제에 저항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잔혹한 형벌과 이를 실시하는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다. 이렇게 체제에 대한 반란자를 잔인하게 응징하는 결과로 로마는 사회적인 안정과 법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 군중들은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

이란 의당히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반국가적 내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였다. 십자가 처형자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예수께서 판결 받은 십자가형이란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최고의 형벌”(summum supplicium)이었다.

V. 십자가의 어리석음

희랍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실재하는 신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들로 간주되었다. 이들에게 신들은 영원한 존재로서 이 세상과는 초월해 있는 존재들이었고, 다신론적이었다. 희랍 로마인들이 표상한 신들은 철학적 명상 속에서 사변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 표상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갈릴리의 무명(無名)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들의 신 표상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신들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고다의 십자가의 처형 속에 이 세상의 구세주로서 자신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로 신표상(神表象)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미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희랍인들이나 로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 없고,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인 예수는 자신

을 메시아라고 하여 정치적 선동자로 몰려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이러한 십자가에 달린 자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어리석음”(moria) 내지 “미친 짓”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이 언급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고전 1:18)라는 말은 십자가 처형에 대한 당시(當時)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을 표명하고 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고전 1:23)으로 간주되었다. 희랍 청중들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다. 십자가라는 단어에는 잔혹한 수치와 멸시와 미련함과 무시(無視)가 동반되었기 때문이었다.

VI. 유대인들에게 인식된 십자가 처형

더욱이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세운 십자가를 자주 볼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증거한 십자가의 말씀을 더욱 인정할 수 없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저주받은 자(신 21:23)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고대 세계의 종교적 이상과 비교하여 볼 때 기독교의 십자가 메시지는 로마시대 역사가 수에토니우스(Suetonius)의 용어인 “해로운, 새로운 미신”(superstitio nova et malefica) Nero 16, 3.으로서 서술될 수 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광

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인자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메시아는 다윗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승리의 왕이지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Joseph Ratzinger, Jesus von Nazareth 2. . 『나사렛 예수 2』. 307. 이러한 영광의 신학 관점에서 십자가란 걸림돌(σκάδαλον, a stumbling block, 고전 1:23)이 되었다.

십자가 신학이란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상징(히 12:2)이었다. 그러므로 그 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 들일 수 없었다. 당시 수치의 상징인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성령으로 감동받은 자들만에게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십자가라는 수치와 걸림돌(skandalon)이라는 장애를 견어내고 나사렛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한,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계속>

북한 지하교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신앙의 도전

최근 오픈도어즈US의 라이언 브라운 대표가 크리스천포스트(CP)에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글을 기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55년에 설립된 오픈도어즈는 70개국 이상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해 왔으며, 기독교인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는 상위 50개국을 선정하는 연례 세계 감시 목록(World Watch List)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음은 라이언 브라운 대표의 기고문 전문이다.

북한은 지난 30년 가까이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의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World Watch List)’에서 거의 매년 1위를 차지해 왔다. 이는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순한 소수 종교의 실천을 넘어,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성경을 소지하거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된다. 신자는 “적대 계층”으로 낙인찍혀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성도들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신앙이 반역이 되는 땅

북한 정권은 김씨 일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한다. 이런 체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곧 반역으로 여겨진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9조는 외국 이념, 특히 기독교를 미신으로 규정하며 관련 자료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성경 한 권이나 찬양 가사 한 줄, 심지어 속삭이는 기도조차 발각되면,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

북한 청소년은 ‘청년교양보장법’에 따라 종교를 살인이나 마약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로 배우며 자란다. 국가보위성이 주도하는 전방위 감시 속에서 주민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유도된다. 이처럼 일상 전체가 감시와 억압으로 채워진 사회 속에서도 지하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점차 그 규모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복음을 품고 돌아간 한 여성

북한에서 태어난 주민 주민(가명)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신앙의 희망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기아에 시달리다 중국으로 탈북한 그녀는, 한 신앙 공동체의 쉼터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접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배워왔던 그녀는, 말씀을 읽으며 전혀 다른 진리를 발견했고,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녀는 망명지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북한 내 비밀 가정교회를 이끌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녀는 “들키면 노동교화소로 끌려가거나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생존을 넘어 헌신과 희생, 그리고 소망의 여정을 보여준다.

◆비교되는 신앙의 현실

자유가 보장된 서구 사회에서는 신앙을 공공의 영역에서 드러내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럽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꺼려진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의 시간을 내는 일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성도들은 체포와 사형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마주한 질문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안일한 신앙에 강한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단지 살

아남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자유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은 도전이자 깨달음이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흘러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박해는 우리의 기도를 일깨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점점 더 믿음에 냉소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의 용기를 통해 침묵이 아닌 증언을, 타협이 아닌 진리를 선택해야 함을 배운다. 북한 교회의 이야기는 고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내와 희망, 그리고 부르심의 이야기다. 철저한 감시와 세뇌, 선전으로 가득한 체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며 성장하고 있다. 당국은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기독교 자료를 불법화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자라고 있다. 미신이나 점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그만큼 절박한 삶의 증거이며, 동시에 희망을 향한 갈망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대한민국 트롯 열풍의 주역

미스터트롯3 TOP7이 LA를 강타한다!



2025년 8월 24일 (일)
2 PM / 6:30 PM (2회 공연)

월셔이벨극장 | WILSHIRE EBELL THEATRE
The Ebells of Los Angeles
743 S. Lucerne Blvd., Los Angeles, CA 90005



미주조선일보LA 창간 6주년 기념 미스터트롯3 TOP7 LA공연이 월셔이벨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임용빈, 손빈아, 천록담,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이상 TOP7 전원이 LA공연에 출연합니다. 임영웅을 잇는 차세대 트롯 황제들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 뜨겁고 진한 감동의 무대를 느껴보세요. 하나 더! 미스터트롯3 TOP7과 함께하는 멕시코크루즈 4박5일(8월 25~29일), 엘리트투어와 떠나세요. 문의 - 엘리트투어 (213)386-1818

티켓 예매 문의 (213)459-6800 | (213)315-5177
e-mail. ticket@chosundaily.com



구독신청. (213)459-6800 | 광고문의. (213)315-5177
4221 Wilshire Blvd. #224, Los Angeles, CA 9001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복된 삶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의 선언

‘산상수훈’ 이후에도 삶은 이어진다… 예수님의 ‘평지 설교’



예수가 평지에서 하신 말씀

알리스테어 벡 | 전의우 역 | 좋은씨앗 | 184쪽 | 14,000원

국내 최초로 평지설교에만 초점을 맞춘 단행본으로, 그 학문적 독창성과 신학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평지설교는 누가복음 6:17-49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설파하며 신앙인의 삶에 깊은 도전을 주는 가르침이다. 특히 가난한 자를 축복하고, 사랑과 자비, 의와 평화를 강조하는 평지설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변함없는 실천적 지침을 제공한다

기독교 선언(The Christian Manifesto)이라는 원제를 가진 알리스테어 벡의 최신 저작이 좋은씨앗을 통해 2025년 새해 출간됐다. 제목은 ‘예수가 평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원서의 부제를 유사한 의미로 살린 것이다: “Jesus’ Life: Changing Words(‘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복 있는 삶으로 초대하시는’으로 바꿈) from the Sermon on the Plain.”

‘선언’으로 번역된 ‘Manifesto(메니페스토)’는 기관이나 단체를 설립한 자가 그 정체성을 대표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자인 벡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설명하신 내용으로, 그분이 평지에서 하신 설교(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내용)를 중심으로 조명한다. 알리스테어 벡은 클리블랜드 파크사이드 교회 담임목사이자 설교와 저작으로 널리 영향을 끼치는 복음주의 기독교 리더이다. 작년 ‘동성결혼식 참석’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그가 견지하는 성경적이고 바른 교리와 그에 관한 열정적 헌신에 관해 의심할 필요는 없다(그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산상수훈에 비하면, 평지 설교는 덜 주목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알리스테어 벡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누가복음 6장 내용이 신선하게 와 닿기도 한다.

저자는 “누가복음 6장의 평지 설교는 최고의 삶을 경험하라는 예수님의 초대장(16쪽)”이라고 말한다. 단지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는 청구서가 아니라, ‘복 있는 삶’으로의 초대장이라는 말이다. 세상의 수많은 광고주나 정치인들이 주겠다고 항상 약속하고는 결국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보게 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참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실제로 주신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얻는 삶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급진적이다. 그분은 선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얻는다는 말이다. 세상의 방식과 유사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약속한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아 이제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저자 알리스테어 벡이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했다:

1. 가치관을 뒤집는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가치 기준을 갖는다. 그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한다. 주께서 복되다고 하신 것에 참된 복이 있고, 화가 있다고 하신 것엔 아무리 세상이 추앙하고 높게 평가한다 해도 화가 있다.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일이라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을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다룬다.

2. 사랑관을 뒤집는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주고받기 방식인 경우가 많다. 가까운 사이라면 사랑하기 쉽고, 원수 같은 사이라면 최소한의 사랑만 베풀어도 감지덕지라 본다. 하지만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려주는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사랑관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3. 자기관을 뒤집는다

‘자기관’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식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유행하는 교만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방식으로 자기를 돌본다. 저자는 이를 ‘순전함(integrity)’라고 하는데, 다른 이가 보는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신경쓰기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전한 자 되기를 힘써야 함을 강조한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타인을 구원에 이르도록 돌이



▲16세기 플랑드르 화가 브뤼헬의 1598년작 ‘산상설교’.

키게 하는 자에겐 이와 같은 자기관이 요구된다.

4. 행동관을 뒤집는다

많은 이들은 말과 행동이 불협화음을 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 말하는 대로 살기를 힘쓰고, 또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한다. 죄인은 언제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홀로 일하지 않는다.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 순종하려는 열정과 의지가 구원의 열매로서 은혜롭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산상수훈과 평지 설교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오해한다. 혹은 그리스도인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이상을 제시한다고 보고, 말씀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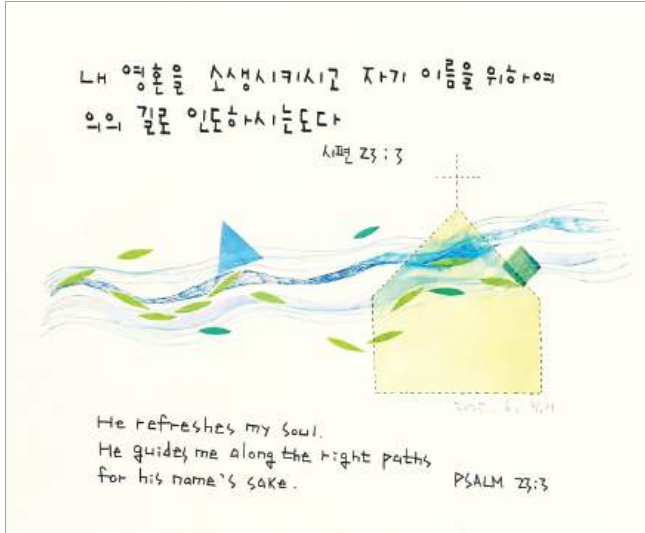
살아내려는 도전 자체를 꺼린다.

하지만 알리스테어 벡이 이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그 급진적인 특성과 함께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되기도 하신다.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여 주어진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리는 존재이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분께 빈손으로, 또 무릎으로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푸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상담심리학 프로그램 디렉터 채용공고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는
상담심리학 석사(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과
전문코칭학 석사(Master of Arts in Professional Coaching) 과정을
담당할 디렉터 교수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요건”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Ph.D. 또는 Psy.D.)
기독교 분야 석사학위 (M.Div., 신학석사 등)
한국어 및 스페인어 강의 가능
관련 분야 교수 또는 디렉터 경력 5년 이상
미국 내 취업 자격 보유
관련 전문면허 소지자 우대

■ “근무 조건”
파트타임 (주 3일), 필요 시 풀타임 협의 가능
급여: 경력 및 역량에 따라 결정

■ “제출 서류”
국·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한글, 스페인어)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추천서 (목회자 1부, 교수 1부)
신분증 사본

■ “접수 마감” 2025년 7월 11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처” Steve Hong (stevehong@ptsu.edu)

CP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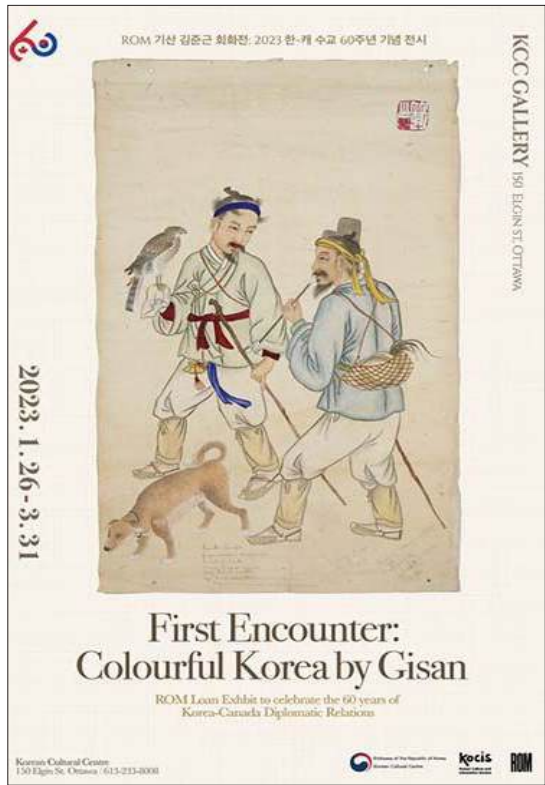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서성록, 한 점의 그림] 기산 김준근의 『턴로력명』 삽도 탄생 배경

1895년 첫 한글 번역 <천로역정> 한복 풍속화

게일 선교사의 각별한 한국 사랑
12년간 한국인들 정서·문화 체험
소설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과
삶의 자세 전하기 위해 번역해
배재학당 삼문출판사에서 발간
기독교 미술 관통 흐름 선구자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은 17세기 영국 청교도 작가인 존 버니언(John Bunyan, 1628-1688)의 우화 형식의 작품으로, 주인공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성경을 읽고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이야기로 돼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생전에 이미 11판까지 나왔고, 판마다 각각 1만 부씩이나 인쇄됐으며, 수백 년을 거치면서 전 세계 100개 이상 언어로 보급된, 세계인이 애독하는 기독교 고전이다. 한국에는 북미 선교사이자 목사인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1863-1937)이 1895년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당시 외래 문학들은 중국어나 일본어 원고를 번역해 소개했지만, 『턴로력명』은 영어 원작을 1차 문헌으로 하되 등장인물이나 용어는 중문본(中文本) 『天路歷程』을 참고한, 한국 근대의 첫 번역 소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게일 선교사가 '조선과 미국의 기독교도의 우애'를 다지기 위해 출간한다고 밝히긴 했으나, 『턴로력명』을 출간하게 된 배경은 그의 각별한 한국 사랑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2023년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린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 전람회 홍보 포스터.

그는 서울의 연못골교회(현 연동교회) 목사 말을 때까지 12년 동안 한반도의 구석 구석을 돌며 선교활동을 펴는 가운데 서민들의 삶 속에 들어갔고,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식견은 저술로 입증됐는데, 총 40편이 넘는 번역서와 단행본, 그리고 국내외 신문잡지 기고를 합치면 400여 편을 헤아린다. 그 중에는 잘 알려진 최초의 영한사전인 『영한자전』(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번역서인 『구운몽』, 『심청전』, 『춘향전』, 『동국통감』 등이 있다. 한글 그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해 차츰 한국어로 쓰인 문학작품, 특히 고전소설, 시가, 민담 등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Korean Repository, Korean Review 등 선교사들이 주로 읽는 잡지에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게일 선교사가 『턴로력명』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된 배경은, 성경 다음으로 사랑받는 이 책을 통해 복음과 기독교적 가치관 및 삶의 자세를 전달하고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게일은 이 소설을 축경 '언문'으로 불리는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기독교적 삶의 가치를 익히고 배울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것이다.

게일은 자신의 한국어 교사였던 이장직(1866-1936)과 자신의 부인 헤리엇(E. G. Harriet)의 도움으로 번역을 완료했고, 이를 신식 인쇄기와 활자 주조기를 갖춘 배재학당 부설 삼문출판사(Trilingual Press)에서 발간했다. 『턴로력명』은 영문판과 유사하게 본문 옆에 삽도를 실었는데, 다른 아닌 당대의 풍속화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판화였다. 삽도의 주인공 기산 김준근(箕山 金俊根, 생몰일 미상)의 신상에 대해 아직까지 소상히 밝혀진 것은 없다. 하지만 그는 대한제국기(1897-1910)에 부산, 인천, 원산 등 개항장을 거점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찾은 여행가, 외교관, 상사 주재원, 선교사 등에게 풍속화를 팔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준근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표시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자, 다른 화공과의 협력과 판화 수법 공유 등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어 내한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부응하였다. 그렇게 팔러나간 작품들로 그는 국내보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에서 더 인정을 받게 되었다. 조선의 문화와 풍속을 담은 그의 작품들은 내한인들의 손을 거쳐 세계 각국으로 뻗어갔고, 한국인의 풍속을 알리는 선두의 자리에 서게 된 셈이다. 가령 한미수호통상조약 주역인 슈펠트(R. W. Shufeldt) 제독이 조선



▲천로역정 중 '크리스천이 복음 전도사의 계도를 받다'(기산 김준근).

에 왔을 때 그의 딸 메리 슈펠트(Mary A. Shufeldt)가 동행하였는데, 그녀가 구입한 풍속화는 본국으로 돌아간 뒤 스튜어트 컬린(Stewart Culin)의 『한국의 놀이』(Korean Games, 1895)란 책에 수록돼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산의 예술은 문화의 전령 역할을 하였다. 그의 작품은 현재 프랑스 국립 귀메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 영국도서관, 비엔나박물관, 덴마크 국립 코펜하겐박물관, 독일 함부르크 민속박물관,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동베를린 미술관, 국립 모스크바 동양박물관, 네덜란드 국립 라이덴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학자들은 대체로 선교사 게일이 김준근을 부산 초량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한다. 초량은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해 문을 연 개항장이었는데, 게일의 눈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선의 다양한 풍속을 담은 풍속화를 그리던 김준근이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 후 제임스 게일은 초량에서 활동하던 김준근을 원산으로 초빙하여 『턴로력명』의 삽도를 의뢰하였다. 선교사가 한국의 풍속화가에게 『턴로력명』의 삽도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보다 선교사 게일은 이 책을 발간할 때 책의 내용이 조선의 문화와 전통의 특성을 살려 독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랐던 것 같다. 이 방식은 게일이 품은 철학이기도 하지만 『천로역정』을 세계 각국에서 발간할 때 준수해온 방식이기도 했다. 가령 중국의

경우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번스(William C. Burns)가 1853년 버니언의 'The Pilgrim's Progress'를 '天路歷程'이란 용어로 번역하면서 10점의 삽화를 넣은 것을 필두로, 1871년 광둥어로 번역된 선교사 피어시(Rev. C. Piercy)의 『天路歷程 土話』에는 명나라 복식과 풍물로 된 30점이 수록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선교사 윌리엄 화이트(Rev. William John White)가 1886년 14점의 삽화를 넣을 때 일본 에도 시대 복식 차림의 인물들로 표현한 것이 그 예이다. 세 나라의 삽화가 그 나라의 복식과 풍속에 따른 것은 선교사의 의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최초로 한글 번역된 『턴로력명』은 개화기 한국어 연구에 주요 문헌으로 손꼽힐 뿐 아니라, 이 책에 수록된 42점의 목판 삽도는 초기 기독교 미술 연구에 주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것은 이 작품이 기독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시기에 나온 귀중한 문화사료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독교 미술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등장인물이 한복과 갓을 쓰고 천사는 선녀의 모습으로, 천국은 신선계로 표현하는 등 토착화된 기독교적 도상의 출현 이후 후배 작가들에 의해 기독교 미술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초기 전교(轉教) 단계에서 기독교를 서구 종교로 인식하는 대중의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전통 문화 속에 스며들게 하여 친근감을 높이려는 의도이리라.

미래를 여는 첫 걸음, 최첨단 디지털 글로벌 캠퍼스에서!

2025년 가을 입학 설명회

Online 입학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Zoom ID: 829.947.6668

개강일: 2025년 9월 2일

★ 날짜와 시간은 미서부 기준

석사 | 목회학 박사과정

2025년 6월20일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학사과정

2025년 6월27일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선교학 | 선교학철학 박사과정

2025년 7월 3일 (금) 오후 4시

전과정 (선교학박사과정제외)

2025년 7월 11일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영어 M.Div. 과정

2025년 7월 18일 (수) 오후 4시

전과정 (선교학박사과정제외)

2025년 8월 8일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입학설명회 참석시 입학금 \$100 면제

15605 Carn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562 926 1023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Cal Grant와 Pell Grant 학자금 지원

현역 및 재향군인 학자금 및 재정지원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 혜택

학사과정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석사과정

목회학, 목회학 전문원목과정, 목회학 전문코칭과정, 선교학, 중국어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코칭학, English M.Div.

박사과정

목회학, 선교학, 선교학 철학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 8천만 민족을 주님께로”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위한 ‘오산리기도원 대성회’ 열려

평양대부흥 120주년·민족복음화대성회 50주년
민족복음화 위해 2027년까지 다시 한번 부흥을
파주 오산리기도원에서 대성회 갖고 본격 준비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본격 준비하는 ‘오산리기도원 대성회’가 16일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진행됐다.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50주년을 기념하는 성회로, 현재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가 중심이 돼 준비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취지문에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1907년 평양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됐다”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성령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한 평양대부흥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한국교회를 일제의 어둠에서 깨웠다. 모든 백성들과 선각자들이 일어나 대한독립을 외쳤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6.25 동란의 참호
한 참사로 백성들이 낙담하고 실의
에 빠져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다”며 “그 후 1973년
‘빌리 그레함 서울전도대회’는 한국

교회 역사상 일일 100만 명이 모인
큰 집회였다”고 했다.

이어 “1974년,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김준곤 목사와 세계대학생총연맹 빌 브라이트 박사와 합의해 여의도광장에서 ‘엑스플로 74 전대회’를 개최했다”며 “하루 평균 130만 명이 모여 청년 복음화를 위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사명을 다 집했다. 나라의 미래인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77민족복음화대성회는 하루 단일 인파 중 가장 많은 180만 명까지 모여들었고, 연인원은 7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성회를 통해 2만5천 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모든 교파와 교단, 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제 우리 모두가 민족종원이라는 대명제 앞에 하나가 되어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본부는 “바울 사도의 심정만 가지면 민족복음화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 모든 일들

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으니 하나님 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는다"고 했다. 이어 "이 성회는 2027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전국 방방곡곡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운동 회계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사역이 다시 한 번 한국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되어 8천만 민족복음화를 이루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함덕기 목사(준비위원장)가 사회를 본 이날 성회에선 김병호 목사(상임대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고, 양준원 목사(성회사무총장)의 성경봉독과 장길용·이수임 집사(여의도순복음큰기적교회)의 특송 후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가 '내 민족을 구원하라'(행 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그러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 또한 그래야 우리가 헌신하고 전도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
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오직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본격 준비하는 ‘오산리기도원 대성회’가 진행되고 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변화가 된다. 귀신과 병마가 물러간다. 중심으로 기도해서 권능과 능력을 받는 성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 성회'에 대한 영상 시청이 있는 뒤 이영훈 목사(대표대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가 영상으로 축하했다. 이 목사는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1977년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 이제 그 불씨를 이어받아 민족구원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할 때다. 이를 통해 회개운동과 성령운동, 전도운동이 전국에서 불붙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행된 특별기도회에선 △한국교회의 회개와 성령운동 △민족복음화 △한국교회 본질 회복과 다음세대 부흥 등을 위해 김원철 목사(공동회장), 김대성 목사(상임대회장), 김유민 목사(대표본부장)가 기도를 인도했다.

성회는 양승호 목사(오산리기도원 부위원장)의 축도로 마무리 됐다.

김진영 기자

美 남침례회, 여성 목사 금지 헌법 개정안 부결

미국 남침례회(SBC)는 여성의 목회 직분 고용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또 다시 부결시켰다. 이는 지난해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개정안과 유사한 조치라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1일(이하 현지시간) 텍사스주 달러스에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며, 전체 투표자 가운데 60.74%인 3천4백21명이 찬성했으나, 통과 요건인 3분의 2(66.7%)는 넘기지 못했다. 반대는 2천1백91표(38.9%)였다.

이 개정안은 SBC 헌법 제3조 1항을 개정해 “성경에서 규정한 대로 모든 목사 또는 장로의 직분은 남성에게만 허용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시키려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제안한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하이포인트 침례교회의 후안 산체스 목사는 표결 전 발언에서 “이번 제안의 목적은 ‘2000



과거 열렸던 미국 남침례회 총회. ©뱃티스트프레스

년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Baptist Faith and Message 2000)가 이미 말하고 있는 바를 더욱 명확히 해, SBC 자격심사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가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회 내 여성의 모든 역할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남녀 집사가 함께 섬기고 있다”며 “보완주

의'(complementarianism)는 여성의 역할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성이 남성과 함께 적절한 방식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주리주 퍼거슨의 제일침례교회 제임스 고포스(James Goforth) 목사는 “SBC는 지역교회의 자율성을 중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약간의 실천적 차이를 허용하면서도 선교 사역을 함께할 수 있

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성 측의 휴스턴 소재 유니버시티 파크 침례교회의 트래비스 카드웰(Travis Cardwell) 목사는 “매년 이 주제로 논쟁하는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며 “자격 심사위원회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마이크 로(Mike Law) 수정안’으로 불렸던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마이크 로 목사가 제안했던 해당 안건은 2023년 SBC 연례총회에서 61%의 찬성을 얻었으나 역시 2/3에는 못 미쳐 부결됐다. 그는 SBC 산하 약 1,800개 교회가 여성 목사를 두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보이스칼리지(Boyce College)
성경학 교수인 데니 버크(Denny

Burk) 박사는 투표 후 SNS를 통해 “최근 3년간의 총회에서 다수는 이 개정안을 지지했지만, SBC 지도부의 반대가 통과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도부가 법적 위험성을 언급한 순간, 상당수 대표들이 표결에서 물러섰다”고 분석했다.

SBC 전 총회장 J. D. 그리어(J.D. Greear) 목사도 “개정안의 내용 자체보다는 협력 정신을 훼손할 우려 때문에 반대한다”며 “이는 소수 교회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텍사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침례교단 여성들이 소속된 단체인 ‘목회하는 여성 침례교인들’(Baptist Women in Ministry)은 “이번 부결은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미|경 기자



**문선영의
머니토크**
PRESENT

한인 커뮤니티 최고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토렌스/샌디에고/프레즈노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건강한 재정과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남가주 재정콘서트
6월 26일 목요일 10am~4pm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10:00 “집을 구매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뱅크오브호프, 202년 부동산 전망과 모기지 론

11:30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양도 커버 되십니까?”
문선영의 머니토크, 라이프 인슈어런스 와 리빙베네프

1:00 “트럼프 시대, 가장 현명한 상속은”
러드너스키 법률그룹, 상속과 상속세

2:30 “내가 편한 은퇴 부동산은 따로 있습니다”
시더스 인베스트먼트, 시니어 하우스링 사고 팔고

4:00 “평생 따박 따박 나의 은퇴 인컴”
피델리티 앤드 개런티, 은퇴 어뉴이티 - 401K, IRA 플호버



한국어/영어 재정세미나 2025
샌디에고 재정세미나
6월 27일 금요일 10am~4pm

우리성모병원 2층 J&J이벤트 홀
7825 ENGINEER RD. SAN DIEGO

총 4개의 세미나를 모두 혹은 선택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전 한국어 세션 이후, 오후에 한국어 개별상담이 가능합니다

10:00 AM 생명보험과 리빙베네프 (한국어)
생명보험을 갖고 계세요? 혹시 내가 앞에 걸리면사
망해서 남겨주는 보상을 내가 살아서 받을 수 있
다는 걸 아시나요?

11:30 AM 은퇴플랜과 어뉴이티 (한국어)
평생인컴이 보장되는 어뉴이티, 이자만 빼서 쓰는
어뉴이티. 401K와 IRA를 활용하는 법

**1:00 PM LIFE INSURANCE
& LIVING BENEFIT** (ENG)

2:30 PM ANNUITY (ENG)

와벡 조해스 우먼인파인런스 인스티튜트
브라질렛 웨일스메니지먼트

문 선 영 와이즈캘리포니아 파비낸스
문선영의 머니토크



은퇴의 필수 플랜, 평생 찾아쓰는 은퇴 어뉴이티
프레즈노 재정세미나
6월 29일 일요일 4pm~6pm

The Conference
8058 N Cedar Ave, Fresno, CA 93720





참가문의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3435 Wilshire Blvd., 14F A04, LA, CA 90010
6 Centerpointe Dr. #737, La Palma, CA 90623
18763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황 20회 (혈액순환)
- 훈육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